

2010. 12. 20 제253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12. 20 제253호

문화 · 디자인

1. 영화를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매체로 활용 (베를린)
2. 새 국가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독일)

산업 · 경제

3. 고용확대를 위한 6대 전략계획 발표 (뉴욕)

행정 · 재정

4. 대규모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1년도 예산안 대폭 삭감 (런던)

도시환경

5. 노후택시 운행 금지 등 대기환경기준 강화 (런던)
6. 유럽 최대 규모로 무공해 수소버스 운행 (런던)
7. 자전거 임대 프로그램과 자전거 고속도로 운영 성과 평가 (런던)

도시교통

8. 일반차량에도 화물차 전용 주차구역 개방 (파리)

도시계획 · 주택

9. 지역 커뮤니티의 도시계획 권한 강화 (영국)

10. '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심부 재생사업 시행 (영국 버밍엄市)

문 화 · 디 자 인

1. 영화를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매체로 활용 (베를린)

○ 2010년 ‘스쿨시네마 위크’ 행사의 일환으로 2010년 11월 10일에서 24일 까지 2주간 베를린 소재 모든 초·중·고교 학생이 일부 수업을 영화관에서 받음. 해마다 베를린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열리는 이 행사 목적은 영화를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매체로 활용하고 이들에게 영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화재능’을 일찍 발굴해 육성하기 위함임.

- 선정된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오락영화에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1900년대 초반 고전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교사들은 영화 수업 전 워크숍에 참가해 영화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론을 배우고 구체적인 수업계획안을 작성함. 영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이 행사는 연방정부가 후원하고 각 州와 市 교육청 및 문화청이 주관함.

· 베를린市는 이번 행사 기간에 4세 이상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도 마련함. 2010년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 행사에 맞춰 영화잡지를 발간하는 것도 지원함. 학생들이 직접 영화평이나 인터뷰기사, 학생이 제작한 영화 소개기사 등을 작성해 잡지를 만들고 행사기간에 배포함.

· 2010년 행사 때 가장 크게 주목받은 학생 영화는 ‘우리의 바다’란 영화임. 학생이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수중 촬영을 한 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내레이션과 자막을 추가해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완성함. 한 방송국의 후원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행사 마지막 날 상영됨. 한 TV 방송국은 학생들의 영화 제작과정을 영상에 담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영할 예정임.

(www.berlin.de/sen/bwf/presse/pressemitteilungen/anwendung/pressemitteilung.aspx?presseid=2858)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 활용법 교육 (영국 스윈든市)

- 영국 스윈든市는 지방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 활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함.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기’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마련됨. 市는 먼저 블로그로 지역 소식을 알리고 행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림.
- 이후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 온라인상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접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집중 교육함. 또한 교육 내용과 성과, 현장 반응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함.

(www.swindonsp.org.uk/ssp-index/connectingpeopleconnectingplaces.htm)

2. 새 국가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독일)

- ‘독일: 아이디어의 나라’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공모전 형식의 문화 프로젝트임. 독일은 그동안 ‘Made in Germany’ 또는 ‘시인과 철학자의 나라’와 같은 국가이미지를 구축해옴. 최근 연방정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재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면서 미래 역량의 핵심으로 보고, ‘혁신’을 새로운 국가이미지로 확립하고자 함. 이에 2010년 공모전은 ‘혁신 독일’이라는 국가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의 혁신을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함.
 - 2006년부터 시행된 공모전은 해마다 12월까지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경제, 문화, 교육, 환경, 과학, 사회 분야에서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공모함. 전문 심사위원이 접수된 아이디어를 ① 미래지향성, ② 독특성, ③ 공공성, ④ 독일의 새로운 면을 부각시키는 지역성의 4개 기준으로 심사한 후 365개를 선정함.
 - 선정된 아이디어는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1개씩 ‘오늘의 지역 아이디어’로 소개되어 자연스럽게 시민의 주목을 받게 됨. 매일 소개된 아이디어는 독일 여행 가이드북 형식으로 연말에 책으로 출판됨.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이디어의 나라, 365개 장소’란 제목으로 4권의 독일 여행 가이드 책자가 발간되어 시판 중임.
 - ‘오늘의 지역 아이디어’는 행사명과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 개요, 행사 기간, 주소, 연락처 등과 함께 소개됨. 각 州, 市, 지역에서는 자신의 지역을 창의·혁신 산업의 메카로 강조하기 위해 시민,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이 공모전에 적극 참가할 것을 권유함.

- ‘오늘의 지역 아이디어’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시립공원인 색채가든에서 다양한 식물의 즙으로 직물을 염색하는 행사 개최(헤머市)
 - 하노버 대학과 심장연구소 줄기세포 공동연구 프로젝트(하노버市)
 -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 워크숍과 심포지엄 개최(칼스루에市)
 - 21개 바(Bar)에서 메클렌부르크 주립극단 공연(슈베린市)
 - 눈이나 손동작을 이용해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 운영체계를 베를린 공대 인체기계공학부에서 개발(베를린)

(www.land-der-ideen.de/)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생명과학센터 설립 (뉴욕)

- 뉴욕市는 알렉산드리아 부동산개발회사와 공동으로 알렉산드리아 생명과학센터를 맨해튼에 설립함. 2.9ha 부지에 15층 규모로 지어진 생명과학센터는 뉴욕 소재 의료시설과 학교,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해 생명과학산업을 시장성 있는 분야로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고성장산업인 생명과학 분야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생활, 건강관리 분야 기술을 제품화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산재되어 있던 의료 분야 기술력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www.nycbiotech.org/)

산 업 · 경 제

3. 고용확대를 위한 6대 전략계획 발표 (뉴욕)

○ 뉴욕시는 지난 12개월간 미국의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고용 성장률을 보임. 특히 연봉 4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고급인력의 고용이 크게 증가함. 직종·업종별로 보면 주로 회계·기술직, 광고업, 건강관리업, 소매업종, 관광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이에 힘입어 시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6대 전략계획을 최근 발표함.

- 시가 발표한 6대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뉴욕 경제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시각 강화: 투자를 증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경기흐름 둔화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도시 경제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전망을 강화함. 이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무역거래 활성화: 뉴욕은 미국에서 무역거래가 가장 활발한 도시 중 하나임. 시는 앞으로도 내수뿐 아니라 국제무역을 강화할 계획임. 도시정부 차원에서 외자 유치에도 힘쓰고 내수산업 혁신과 고용창출로 지역 산업도 보호할 방침임.
- 규제 재정비: 로비스트에 좌우되는 투자생리를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규제안을 마련함.
-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높은 사업세를 재조정하고 사업소득, 무역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화해 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활동하도록 지원함.
- 직업교육 투자 확대: 2004년부터 경력센터(NYC Career Center)

를 운영한 결과 5년간 2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둠.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한 市는 2010년 10개의 직업교육시설을 개관해 새로운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계획임. 연방정부와 州정부에서도 밀도 높은 직업교육을 시행하도록 예산을 지원함.

- 이민자 관리시스템 재정비: 해마다 증가하는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뉴욕 시민의 40% 이상이 뉴욕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고 이들 대부분이 미국인이 아님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못한 이민자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市는 이번 전략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지원도 받고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도 제공할 계획임. 나아가 市는 도시경제 성장을 위해 6대 전략계획뿐 아니라 소규모 개인 사업자와 신규 사업체 창업을 장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임.

(www.nyc.gov/html/om/html/2010b/media/pc120810_abny.aspx)

4. 대규모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1년도 예산안 대폭 삭감 (런던)

- 대규모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의 정책이 런던市 2011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됨. 영국 정부가 2015년까지 980억 파운드 (약 176조 835억 원)의 예산을 줄이려는 계획에 따라 포괄적 예산 검토안을 작성함.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런던市는 이용 가능한 재원에 맞춰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됨.
 - 이에 따라 市는 조만간 없어지는 런던 개발청을 제외하고 런던 치안청, 화재 비상계획청, 교통국 예산을 향후 4년간 평균 21% 줄여야 함. 이는 중앙정부기관보다 높은 수치임. 런던의 경제개발 전략을 담당한 런던 개발청이 폐지되는 것도 예산삭감 정책에 따른 것임.
 - 市는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예산삭감 정책에 기초해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요 전략계획을 작성하는 동시에 예산삭감 폭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도 벌임. 특히 교통, 경제개발, 도시재생 분야 사업의 자원 확보를 위해 힘씀. 市는 2011년도 전체 예산안이 확정되면 자치구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市 산하기관 예산규모를 정할 계획임.
 - 市 산하기관도 2011년도 예산제안서를 작성 중임. 기관별 주요 현안과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런던 교통국: 2015년까지 기존 예산의 21%를 줄여야 함. 교통 분

야 핵심사업 예산은 유지될 전망이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28%의 예산삭감이 예상된다. 지하철 개·보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힘씀.

- 런던 치안청: 치안 분야 예산도 향후 4년간 기존 예산의 20%를 줄여야 함. 이로 인해 경찰관 수가 1000명 이상 줄고 치안상황도 나빠질 것으로 우려됨.
- 런던 화재 비상계획청: 화재 비상계획 분야 예산도 향후 4년간 기존 예산의 25%를 줄여야 함. 가장 시급한 서비스 분야는 예산삭감이 없도록 할 방침임.
- 경제개발과 도시재생 분야: 런던의 경제개발과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런던 개발청이 폐지됨에 따라 이 분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런던 개발청이 수행한 기능을 市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이고자 함. 市는 향후 주택 및 도시 재생청을 설립해 경제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Pre-Budget%20Report%202010%20FINAL.pdf)

도 시 환 경

5. 노후택시 운행 금지 등 대기환경기준 강화 (런던)

- 런던시는 2010년 12월 14일 발표한 대기질 전략(Air Quality Strategy)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강화된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시는 미세먼지의 80%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약 20%는 노후화된 택시에서 배출됨에 따라 노후택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우선 시행할 방침임. 이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1200여 대에 달하는 15년 이상 된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됨.
 - 2012년 4월부터는 택시 운행기준도 강화해 노후차량이 아니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행 여부를 결정함. 런던 시내 택시는 1년에 한 번 런던 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장비 점검을 통과해야 하는데 2013년부터는 점검 횟수를 연간 2회로 늘림. 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사업자의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직영 검사기관(3개소)이 아닌 일반 정비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 또한 2012년 1월 이후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운전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함.
 - 시와 교통공사는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택시 사업자가 기존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바꿀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함. 런던의 검은색 택시는 빨간 우체통과 함께 런던을 대표하는 명물임. 최근 시는 친환경 전기택시를 개발해 전통적인 디자인도 살리면서 환경도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대기질 전략에는 이밖에 ① 소형 화물차와 버스의 배출제한지역 진입

규제, ② 2015년부터 배출제한지역에 새로운 이산화질소 기준 적용, ③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④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저감대책 강화, ⑤ 토지 개발이나 주택단지 건설 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도시계획(Air Quality Neutral) 모색, ⑥ 에너지효율 증진 대책 시행 등이 포함됨.

- 市는 새로운 대기질 전략을 추진해 2015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2008년 대비 1/3 수준으로 줄이고 이산화질소 발생량은 2008년 대비 35% 정도 줄일 계획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

(www.london.gov.uk/air-quality)

시장(市長)이 정책 현안을 주제로 시민과 인터넷 채팅 (파리)

- 파리市는 2010년 9월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시정을 설명하고 市 현안을 주제로 시민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함. 12월 17일 인터넷 채팅 행사에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의 질문에 답함. 시민은 市 공식홈페이지와 연결된 채팅 블로그로 미리 질문하거나 실시간으로 질문함.

(<http://91.121.81.35/chat/paris/171210/>)

6. 유럽 최대 규모로 무공해 수소버스 운행 (런던)

- 런던시는 2010년 12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함. 이 수소버스는 물 이외에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으므로 대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시는 또한 영국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버스 노선을 만들고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런던 동부에 조성할 계획임.
 - 영국 최초로 도입된 수소버스 8대가 우선 2010년 12월 18일부터 런던 시내에서 운행됨. 이들 수소버스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첨단 수소 연료셀 기술이 적용되며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행됨. 런던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던 버스 노선이 2011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무배출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임.
 - 시는 2012년까지 최소한 135대의 수소버스와 15대의 수소택시를 도입할 계획임. ‘런던 수소버스 파트너십’은 수소버스 운행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수소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함. 자치구, 토지 소유주와 협력해 향후 2년간 6개 수소충전소도 건설할 예정임.
 - 시는 물만 배출하는 수소버스 운행이 시가 추구하는 깨끗한 도시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동시에 전기자동차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www.london.gov.uk/press_releases/mayor-of-london)

7. 자전거 임대 프로그램과 자전거 고속도로 운영 성과 평가 (런던)

- 런던시는 시 전역에 걸쳐 시행 중인 자전거 임대 프로그램과 자전거 고속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평가를 주관한 시 교통위원회는 자전거 임대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계획 및 운영에 대해서는 목표와 성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함. 자전거 임대 프로그램과 자전거 고속도로 운영의 질 및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예산 집행 계획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시에 요청함.
 - 위원회는 10만 명의 자전거 임대 프로그램 참여자가 매일 2만 4000번 통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자전거 보관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시설 운영 및 관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시민 의견도 제시함.
 -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위원회는 자전거 고속도로 이용자의 50%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자전거 고속도로 폭이 너무 좁고 고속도로가 중간중간 끊겨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이 불편하다는 조사결과도 제시함. 시는 앞으로 12개 자전거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매일 12만 명이 이용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cycle-hire-and-highways-assembly-first-term-report)

8. 일반차량에도 화물차 전용 주차구역 개방 (파리)

○ 파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노란 실선으로 표시된 화물차 전용 주차구역을 일반차량이 이용하도록 개방함. 이 정책은 지난 몇 개월간 파리 3區와 17區에서 시험 실시되었다가 이번에 市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임.

- 市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초부터 市 경찰청, 일 드 프랑스 운송조합, 파리 상인조합과 화물차 전용 주·정차구역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옴. 평일 저녁 8시~다음날 아침 7시, 휴일에는 화물차와 일반차량의 주차가 많이 겹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시간대에는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을 일반차량에 개방하기로 결정함. 市는 이번 정책으로 주차구역이 7000개 정도 새로 생기는 효과가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병용(竝用) 주차공간은 1개의 노란 점선으로 표시되고 평일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함. 하지만 빵집과 슈퍼마켓 등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가게의 배달차량 전용 주·정차구역은 2개의 노란 실선으로 표시되며 일반차량의 주차가 계속 금지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93594&portlet_id=24329)

도시계획·주택

9. 지역 커뮤니티의 도시계획 권한 강화 (영국)

○ 최근 집권한 영국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는 농촌과 도시 지역 커뮤니티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령을 시행함. 이에 따라 지역 내에 주택과 가게, 각종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경우 지역 커뮤니티가 탄력적인 도시계획 허가 권한을 행사하게 됨.

- 연립정부는 이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권리’(Community Right to Build)로 이름 짓고 주택 등의 건설 허가권을 지역 커뮤니티에 부여함. 또한 커뮤니티가 개발계획을 결정할 경우 동의 요건을 75%에서 50%로 완화함.

· 커뮤니티의 도시계획 권한 강화 방침은 지역 커뮤니티가 지역이 당면한 주택 문제 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이에 지역 커뮤니티의 동의를 개발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 또한 연립정부는 공유주택 평생 거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거주권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자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공유주택 거주자끼리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할 수 있도록 ‘공유주택 교환제도’도 마련 중임.

(www.rege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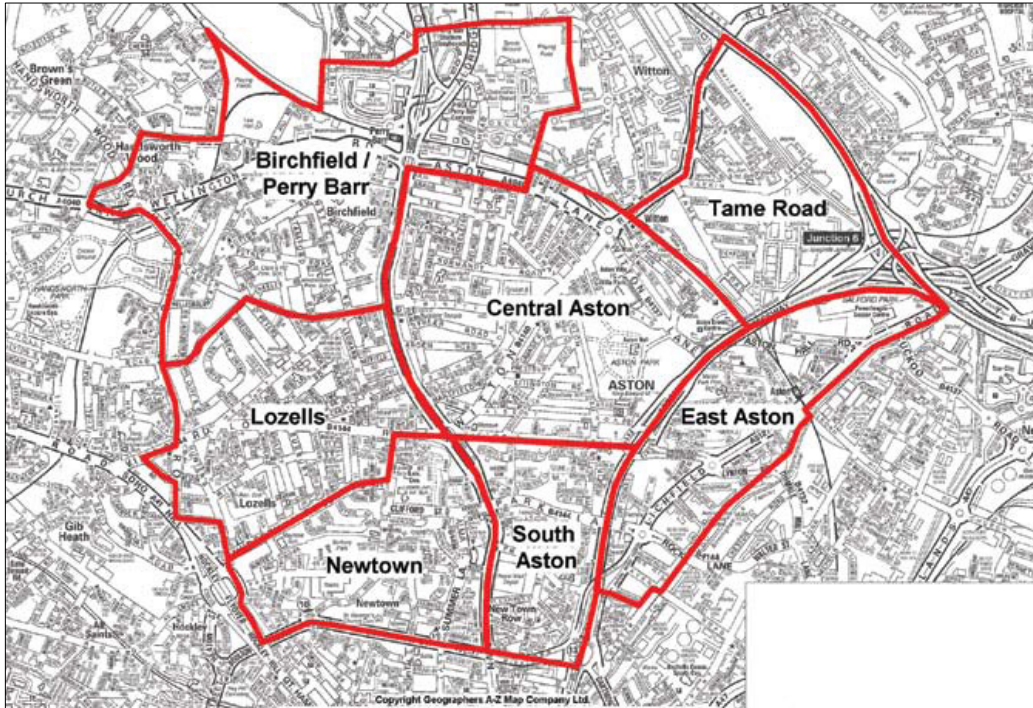
10. ‘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심부 재생사업 시행 (영국 버밍엄市)

○ 영국 버밍엄市는 향후 15년간 도심부의 애스턴, 뉴타운, 로젤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이러한 방침은 새롭게 수립된 법정 토지이용계획인 ‘지역 활성화 계획’에 기초해 마련되었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11년 초에 중앙정부 승인을 요청할 예정임.

- 지역 활성화 계획은 2007년에 4가지 활용방안(최소한의 변화, 약간의 변화, 실질적 변화, 대규모 변화와 발전)을 시민에게 제시하고 공공 협의과정을 심도 있게 거친 후 2009년 하반기에 최종안이 발표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민은 대대적인 변화와 발전을 원하며, 주택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환경, 안전, 디자인, 일자리 창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市 교통·재건축은 이번 계획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계획으로 투자규모와 미래지향적인 성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제시한다고 밝힘. 지역 활성화 계획은 주택 건설부터 일자리 창출, 시민의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룸.

- 지역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투자 유치를 위해 20ha 공간을 제공하고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계획 대상지역 주변 840세대 신규 주택 건설, ③ 뉴타운 지역 주택정비 사업 시행, ④ 로젤스 지역 환경 개선·친환경 재건축 및 공터를 활용한 주택개발 사업 실시, ⑤ 버치필드/페리 바 지역 4만㎡ 부지를 업무용 공간으로 활용, ⑥ 테임로드 지역을 산업 재건사업 특별지역으로 지정 등임.



<지역 활성화 계획 대상지역>

(<http://birminghamnewsroom.com/?p=14599>)

2012 올림픽 무료입장권 약 12만 장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 계획 (런던)

- 런던시는 2012 올림픽 기간에 런던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2만 3000 장의 입장권을 무료 배부할 계획임. 시는 우선 5만 장의 입장권을 구입해 학생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함. 입장권을 배부하면 런던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8명 중 1명은 올림픽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는 이를 계기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